



[라이프] 식품·패션 넘나드는 댄스 신드롬 스우파, 광고계 접수



Life

Advertisement for '제외업종 피해 보상' (Out-of-business compensation) with a photo of a press conference.

선정기준 높이고, 우수기업엔 인센티브... 강소기업 지원 개선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 우수기업 찾아 청년 인재 유입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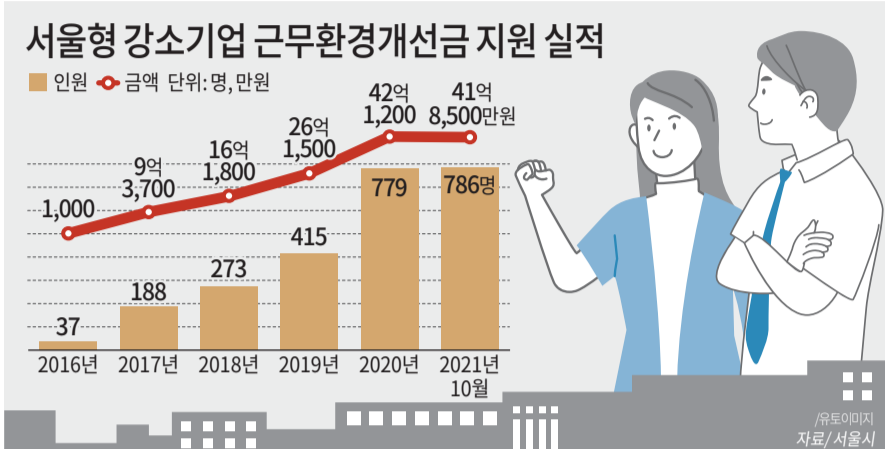
중소 인식개선 등 정책 실효성 ↑ 기업 대표·재직자 현장 목소리 반영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를 갖춘 중소기업을 찾아내 지원하고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나선다.

내년 서울형 강소기업 추진계획은 ▲정성평가 확대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의 지 평가 ▲조직문화 개선지원 및 청년 채용 연계 강화 ▲지원금 지급 위주의 지원 정책 탈피를 골자로 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876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을 신청해 771개가 선정됐다. 서울



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한 기업 133개를 제외하면 현재 남은 인증 기업은 638개다.

시는 이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3명까지 1인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생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지난 6년간 시는 근무환경개선금 지

원 대상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6년 37명에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188명에 9억3700만원, 2018년 273명에 16억1800만원, 2019년 415명에 26억1500만원, 작년 779명에 42억1200만원, 올해 786명에 41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환경개선금으로 2478명에 135억77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할 때 현장실사와 면접심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평가 항목에 도입하기로 했다.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실적,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점수가 저조한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정성평가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직문화 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복지제도 확대,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등 서울형 강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성과를 평가해 실적이 좋으면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대상을 기존 3명에서 4~6명으로 늘리거나 민간채용포털 연계 배너광고를 통해 기업 홍보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같은 기존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인식개선, 채용지원 방안 모색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 대표

자와 청년 재직자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순부터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근무환경개선금을 수령해 정산을 완료한 기업 96곳 중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근무환경, 복지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16~2020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585개사 중 청년 정규직 채용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 75곳을 상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청년 의무 고용여부 서면점검을 벌인다. 본 점검에서 시는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현황과 향후 채용계획을 살필 방침이다. 점검 결과 폐업, 영업 중단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경미한 위반시 시정조치 및 협약 의무 사항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6억 쏟아

서울시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 결제금액 5만원 이상 10% 페이백

서울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이벤트를 연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약 한달간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상품권 사용 금액에 따른 페이백 이벤트와 상품권·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합산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사용액의 최대 10%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1회 응모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하다. 서울시내 전통시장들은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기간 중 결제한 모바일 온누

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영수증을 '단골시장닷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영수증 등록 1건당 단골 포인트 1P를 적립해주고, 2주 연속 영수증을 등록하면 단골 포인트 10P를 추가로 지급한다. 적립한 포인트는 휴대폰, 가전제품 등 경품 응모 시 이용하거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20P는 5000원 상당, 40P는 2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지맵(Z-MAP)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골시장닷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유망 핀테크 기업 코스닥 상장 지원

한국거래소와 상장 지원 업무협약

서울시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우수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핀테크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상장으로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이 이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에 서울시와 한국거래소는 핀테크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문가 상담, 교육, 기업설명회 등 전 단계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서

소문2층사 대회의실(19층)에서 '우수 핀테크 기업 상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우수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한국거래소에 추천하고 기업들이 상장설명회와 기업설명회를 진행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한국거래소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상장 가능성을 진단한 뒤 상장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한 교육, 일대일 맞춤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아동학대 재발 막는 '심리치료센터' 운영

서울시, 피해 아동·가족 대상 치료 지원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내에 '아동학대 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 심리치료센터는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는 조치를 적

시에 시행한다. 심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학대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센터는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사례회의, 임상상담·심리치료 인력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Weather forecast for November 11th, including a map of Korea showing temperatures in various cities and a list of weather indices like wind speed and UV index.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징검다리로 APEC서 화상 접촉 /사진 뉴시스 ▲미국서 수정란 바깥에 남아의 아이 출산...병원 상대 소송

▲모더나, 美와 백신 특허권 분쟁...“이익배분 큰 영향” ▲美 10월 소비자물가, 6% 수준 예상...“더 높아질 위험”



▲전기차 집중한다더니...형다자동차, 759억 주식 매각 /사진 뉴시스 ▲냉전시대 복귀...미, 독일주둔 미사일 사령부 20년만에 재가동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